



수험소식 및 수험자료

예비사무관 364명 공직에 첫 걸음 내딛는다

- 2019년 신입관리자 과정(5급 공채) 입교식 개최 -

I. 개요

1.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(원장 양향자)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사무관 364명을 대상으로 7일 입교식을 갖고 8월 30일까지 17주 간 신입관리자 과정 교육을 진행한다.
2. 이번 과정은 ‘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신입 사무관 양성’이라는 목표 아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기본 자세와 직무 전문성, 리더십과 글로벌 역량을 고루 갖춘 인재를 키워내는 데 의의가 있다.
3. 우선, 예비사무관들이 정부조직에 신속히 적응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 교육을 강화한다.
 - 공통적으로 필요한 직무지식 교육은 물론 국정과제 해결을 위해 직접 정책을 기획해 보는 실습교육도 운영한다. 사회혁신방법론으로 알려진 ‘디자인 씽킹’* 방식을 적용해 국민을 중심에 두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병행할 예정이다.
 - * 수요자의 상황에서 문제 발생의 전체 과정을 들여다보고 근본적 해결책을 발견하는 과정
 - 특히, 이번 과정에서는 신규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한다. 전 교육생이 긴급 상황에서 국민 생명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4차례에 걸친 반복적 실습과 엄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료 여부를 성적에 반영하기로 했다.
 - 이외에도 한국개발연구원(KDI), 국립외교원 등 전문 연구·교육기관과 협력 하에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 등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.
4. 한편, 첫 2주 간 합숙교육에 각 부처에서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은 선배 공무원들을 참여토록 하여 공직생활의 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통해 예비사무관들이 공직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5. 양향자 국가인재원장은 입교사에서 “국민을 위한 공무 수행이라는 공무원으로서의 업(業)에 충실해 달라”고 강조하면서 “동료들과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보다 가치 있는 일에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퍼스트팬권이 돼 달라”고 당부했다.
6.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환영사를 통해 “시대가 바뀌어도 공직사회의 변하지 않는 가치인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정신을 항상 갖춰 달라”고 강조하면서 “미래 변화에 대

비하여 많은 업무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불어 넣는 공무원으로 성장해 줄 것”을 주문했다.

II. 2019년 신입관리자과정(5급 공채) 교육계획 개요

1. 교육 목표

- 신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공직가치 내재화 및 올바른 공직자세 확립
- 기초적인 직무지식·기술 습득 및 문제 해결형 정책 기획력 향상
- 신입관리자에게 필요한 공직 리더십 형성 및 국제적 감각 함양

2. 과정 개요

- (교육 대상) 5급 신규임용 예정자 364명(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)

구분	계	남	여	비고
계	364명	219명	145명	▶ 평균연령 27세 (최연소 23세, 최고령 43세)
행정	282명	163명	119명	
기술	82명	56명	26명	

- (교육 기간) 2019. 5. 7.~8. 30, 17주
- (주요 특징) 합숙교육(2주), 직군 간 통합 분반 운영(일반행정, 재정, 기술 등), 외부 우수 프로그램 공동 운영, 외교관후보자 합숙교육 등

3. 과정 체계

